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당신이 직접  
세상의 변화가 되어 주세요”

- 마하트마 간디



“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

유네스코의 설립 목적은  
누구나 인종과 성, 언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정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받도록  
국가 간 교육, 과학, 문화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유네스코헌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

# 목차

04	<u>함께 해주신 후원자분들</u>
09	<u>감사의 글</u>
10	<u>현장이야기 1:</u> 르완다에서 온 편지
13	<u>기금보고</u>
16	<u>현장이야기 2:</u> 지구 건너 펼쳐지는 따뜻한 ICT 교육
18	<u>성과보고:</u>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26	<u>성과보고:</u> 브릿지 아시아 사업
36	<u>현장이야기 3:</u> 사장님이 된 우리 아내
39	<u>성과보고:</u>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40	<u>현장이야기 4:</u> 가르침과 배움으로 마을에 변화를
42	<u>후원자의 밤</u>
44	<u>후원자의 편지</u>
46	<u>기관소개</u>
52	<u>자주 하시는 질문</u>
54	<u>유네스코헌장</u>
56	<u>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

# 2019년에 함께 해주신 후원자 분들

## 개인 후원자

감도경	강경숙	강교성	강군석	강규한	강대성	강대용	강동렬	강동진	강동훈	강리경	강문선	강문수	강미리	강미숙	강미영	강민경	강민서	강민선
강병규	강보성	강상원	강선녀	강성광	강성필	강소래	강순희	강신영	강영옥	강영희	강원형	강윤서	강은희	강인모	강인서	강자청	강정모	강정숙
강중순	강준광	강준호	강지성	강지원	강지준	강지혜	강찬우	강준근	강필성	강한수	강혜경A	강혜경B	강혜영	강혜원	강효정	강희수	계성찬	계세협
고건우	고경남	고광홍	고기식	고남균	고영진	고문기	고미정A	고미정B	고민정	고민준	고민철	고서율	고순자	고승용	고영권	고영수	고영욱	고예지
고옥선	고유경	고유빈	고윤철	고인순	고진석	고진아	고화순	공남희	공성필	공순덕	곽내현	곽미진	곽병남	곽병준	곽상우	곽수용	곽우실	곽우태
곽재윤	곽진	곽진수	곽진화	구기현	구동관	구영미	구영옥	구지형	구정일	구진곤	권갑수	권기범	권다운	권도형	권만섭	권묘정	권미숙A	권미숙B
권미희	권민주	권부연	권성주	권소연	권속자	권순오	권순자	권승원	권오규	권오목	권우창	권원일	권은주	권의재	권재홍	권정건	권정란	권지에
권진숙	권진욱	권태현	권해린	권혁연	금나영	기미라	김가비	김강자	김건	김건호	김건희A	김건희B	김경미/이승현	김경범	김경섭	김경심	김경재	김기란
김경진	김경철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경희D	김광호	김교정	김국진	김궁희	김귀배	김규진	김근수	김근희	김금순	김금슬	김금자	김금준	김기란
김기선	김기찬	김기철	김기태	김기홍	김기환	김길원	김길현	김나연A	김나연B	김나영	김나혜	김남규	김남춘	김다영	김다현	김다혜	김대복	김대식
김대왕	김대진	김대한	김대현A	김대현B	김덕훈	김도진	김도형	김도훈	김동균	김동선	김동준	김동진	김동철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두레	김두준
김두현	김라은	김마로	김만석	김민수	김영국	김영삼	김영수	김영신A	김영신B	김영옥	김영익	김영지	김문균	김문원	김문정	김문환	김미경A	김미경B
김미선	김미성	김미손	김미애	김미연A	김미연B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옥	김미림	김미지	김미정A	김미정B	김미현A	김미현B	김미현C	김미화	김민경	김민선
김민석	김민준	김민아	김민이	김민정A	김민정B	김민정C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A	김민지B	김민호	김범수	김범성	김범길	김범노	김병수	김병준	김병상
김병찬	김병호	김병훈	김보선	김보욱	김복수	김복한	김봉균	김봉기	김봉해	김부열	김비이	김상만	김상호	김상훈A	김상훈B	김새롬	김서아	김서울
김서진	김서현A	김서현B	김석우	김석원	김선영A	김선영B	김선유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A	김성수B	김성순	김성연	김성원	김성주	김성준	김성현	김성호A
김성호B	김성홍	김성환	김성훈	김세동	김세연	김세진	김세현	김세환	김소라	김소영	김소현	김수강	김수미A	김수미B	김수민	김수연A	김수연B	김수자A
김수자B	김수정A	김수정B	김수지	김수현	김수환A	김수환B	김수희A	김수희B	김순덕	김순애	김순자	김승구	김승기	김승길	김승리	김승범A	김승범B	김승유
김승희A	김승희B	김승희C	김승희D	김시연	김신실	김신혁	김아람	김아리	김아영	김아진	김안순	김안옥	김양분	김양욱	김여진	김영서	김연수	김연숙
김연주	김연희	김영관	김영근	김영기	김영란A	김영란B	김영민	김영복	김영숙A	김영숙B	김영숙C	김영숙D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은	김영이A	김영이B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직	김영진A	김영진B	김영찬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희	김예수	김예지	김옥경A	김옥경B	김옥진	김옥진	김옥진
김완일	김완태	김용미	김용배	김용범	김용선	김용숙	김용순	김용우	김용운	김용임	김용하	김용호	김우준	김우혁	김육태	김원	김원규	김원식
김원준	김원철	김유남	김유민	김유철	김윤기	김윤서	김윤아	김윤일	김윤자	김윤정	김윤채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도	김은선	김은수	김은숙	김은실
김은애	김은영A	김은영B	김은영C	김은영D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하	김은화	김익현	김인곤	김인옥	김인철	김인하	김일순	김자이(연세교회)	김재권	김재현
김재근	김재선	김재학	김재형	김정경	김정례	김정민A	김정민B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연	김정연A	김정연B	김정옥A	김정옥B	김정은	김정철
김정해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A	김정희B	김정희C	김제연	김제현	김종남	김종모	김종민	김종범	김종복	김종원	김종천	김주남	김주연	김주호	김준구
김준기	김준영	김준형	김준휘	김지만	김지섭	김지수	김지연A	김지연B	김지영	김지오	김지용	김지원	김지현A	김지현B	김지현C	김지환	김진걸	김진규
김진량	김진목	김진민	김진성	김진웅	김진화	김진희	김창대	김창도	김창환	김채욱	김채원	김태훈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A	김태호B	김태환	김태훈
김태린	김태민	김태선	김태순	김태우A	김태우B	김태우C	김태우D	김태웅	김태인	김태천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A	김태호B	김태환	김태훈	김필선	김학경
김한나	김한누리	김해길	김해란	김해식	김해자	김행선	김현진	김현	김현곤	김현규	김현성	김현수A	김현수B	김현숙	김현순	김현아	김현영	김현자
김현정A	김현정B	김현정C	김현정D	김현정E	김현주A	김현주B	김현주C	김현지	김현진	김현철A	김현철B	김형규	김형준	김형중	김형춘	김형희	김혜경A	김혜경B
김혜련	김혜미	김혜선A	김혜선B	김혜정	김혜희	김호경	김호근	김호수	김호영	김호원	김호준	김호철A	김호철B	김화중	김화춘	김환승	김희정	김효동
김효선	김효연	김효정	김효진	김훈기	김희경	김희배	김희수	김희숙	김희순	김희영	김희용	김희정	나금주	나민석	나영진	나용	나인애	나정순
나청자	나희경	남막례	남상욱	남순희	남윤민	남예지	남옥임	남유선	남유송	남유은	남윤아	남윤제	남일순	남정덕	남정순	남지민	남지현	남진영
남현정	남화정	노경평	노다경	노영란	노예진	노용만	노정숙	노정열	노제섭	노지영	노지원	노진희	노정남	노태상	노희숙	노근우	노정만	노철수
도희철	동민우	라창선	로렘카페	류경석	류미경	류상영	류수민	류승화	류은희	류정근	류정훈	류현우	마희순	명재민	모숙경	문경준	문명득	문명득
문성주	문성우	문성훈	문시우	문언정	문영식	문용남	문유주	문은지	문일곤	문주란	문지현	문해진	문희자	민계홍	민동식	민성용	민성자	민영서
민예은	민창기	박가람	박각생	박근태	박경리	박경미	박경준	박경진	박경태	박경호	박관홍	박광우	박근홍	박기순	박기연	박기정	박길준	박다인
박달서	박동영	박득춘	박만석	박민천	박명수	박명의	박명자	박명재	박무제	박미경	박미란	박미선	박미애	박미전	박미정	박미주	박민건	박민규
박민선	박민수A	박민수B	박민희	박병렬	박봉서	박상두	박상미	박상민	박상필	박상훈	박서진	박서현	박석원	박선병	박선주	박선화A	박선화B	박선희A
박선희B	박성근	박성민A	박성민B	박성순	박성용	박성우	박성웅	박성진	박성현	박성호	박세진	박소연A	박소연B	박소연C	박소영	박소현A	박소현B	박수원
박속희	박순례	박순철	박승기	박시우	박시현	박아영	박연수A	박연수B	박영규	박영근	박영대	박영도	박영민	박영범	박영서	박영수A	박영수B	박영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나의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후원자의 마음이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희망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육 나눔’이라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저개발국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영우	박영자A	박영자B	박영채	박영호	박영희	박예숙	박옥봉	박옥조	박은비	박우광	박유빈	박유정	박유진	박윤지	박윤하	박윤후	박은경	박은동
박은선	박은숙	박은영	박은혜	박은희	박인환	박임순	박재혁	박재형	박점순	박정민	박정빈	박정심	박정인	박정주	박정현	박정혜	박정호	박정환
박종근	박종선	박종숙	박종안	박종일	박종철	박종호	박주석	박준범	박준환	박준희A	박준희B	박지성	박지연	박지우	박지원	박지현	박진미	박진솔
박진우	박진희	박찬승	박찬영	박찬웅	박찬진	박창식	박창오	박채아	박철범	박철호	박지홍	박태연	박태준A	박태준B	박태형	박평호	박하나	박현경
박현숙	박현웅	박현주A	박현주B	박현주C	박형준	박혜리	박화숙	박하은	박종정	박훈	박휘윤	박홍규	박홍순A	박홍순B	박홍제	박희숙	박희진	박희진
방성주	방영복	방예지	방인영	방정학	방지환	방지석	방창준	배경태	배관우	배권현	배길승	배남인	배상순	배서은	배세은	배영은	배용덕	배윤진
배은정	배정민	배정수	배정호	배정환	배진관	배진석	배진한	배찬군	배태선	배태연	백경기	백경연	백광진	백남식	백명기	백성철	백서연	백수영
백승원	백승한	백승현	백영연	백운정	백인호	백지선	백지현	백혜진	변소윤	변용석	변은모	변종대	변재원	변재호	빈옥인	빈지은	사우원	서강식
서개석	서광원	서길몽	서동우	서동원	서만교	서미영	서병문	서성환	서수연	서순미	서여록	서연우	서영민	서영준	서영택	서옥희	서재길	서점하
서정아	서종문	서주석	서준호	서지향	서창용A	서창용B	서현수	서현숙	서호연	석다희	석보현	석요셉	석정금	선경호	선연희A	선연희B	설봉규	설옥경
성모진	성백제	성석현	성선조	성영희	성재훈	성정규	성주영	성지연	성한제	손경수	손명호	손봉한	손상호	손아영	손연주	손옥수	손승관	손정수
손정태	손지희	손진권	손진주	손철완	손희경	송가영	송경섭	송광민	송기준	송다인	송대현	송동호	송려원	송명규	송민희	송성민	송시훈	송연재
송영주	송영하	송예원	송용출	송유림	송은수	송재호	송정연	송정희	송종진	송주복	송준영	송지은	송진성	송태진	송형진	송호천	송희동	송희원
신경주	신대현	신동진	신동욱	신동월	신동진	신동진	신명수	신명진	배태철	신미아	신민경	신민수	신민택	신봉철	신상윤	신상태	신서영	신석원
신성민	신소애	신승경	신승원	신연숙	신영균	신영환	신요한	신용태	신용철	신원식	신유경	신유정	신윤정	신은선	신은자	신재인	신재현	신정숙
신정인	신종범	신종철	신지애	신지영A	신지영B	신지원	신찬의	신창현	신치교	신현길	신현운	신혜림	신화남	신훈철	신희숙	심고은	심미옥	심상용
심수섭	심영환	심옥화	심외보	심은하	심점자	심지용	심효선	심희걸	안갑식	안경섭	안경수	안광재	안덕식	안도겸	안도균	안봉선	안봉호	안상일
안서윤	안세은	안세정	안세준	안소연	안소영	안수호	안수정	안수주	안승권	안승현	안신정	안영기	안영복	안영호	안예준	안용섭	안익진	안재호
안정하	안중렬	안지만	안지선	안지완	안지희	안지석	안지현	안형모	안흥기	안훈숙	양가윤	양경용	양대성	양덕형	양도혁	양무인	양미숙	양민혁
양영하	양병권	양성민	양세라	양순하	양소레	양승진	양지환	양연주	양영희	양원우	양영경	양은정	양은주	양민성	양주란	양지윤	양지민	양지현
양현준	양해준	양희수	양희숙	양희주	여수옥	염광섭	염두영	염선의	염은식	염태철	염호룡	여재욱	여희숙	여정미	연제창	염광민	염기상	염기상
오경효	오경희	오광래	오근희	오금환	오대겸	오대석	오덕주	오명열	오미경	오복수	오세민	오세용	오소녀	오소향	오수길	오숙자	오승교	오승봉
오승철	오승호	오시원	오애경	오영화	오용진	오윤신	오진선	오창훈	오현철	오호림	옥연호	옥천수	왕지훈	용환선	우관문	우남일	우단해	우덕기
우삼식	우승희	우재명	우지연	우태욱	우현수	원세연	원용준	원은주	원인성	원종현	원현숙	위성한	위수지	위해복	유가은	유경수	유경자	유광준
유기홍	유단화	유도연	유동철	유미진	유민영	유민철	유병선	유선경	유성중	유소영	유솔화	유승애	유승원	유신혜	유영미	유영택	유인광	유일
유재걸	유재수	유정근	유정숙	유정호	유종연	유지연	유지웅	유진섭	유철	유준길	유하영	유한들	유현수A	유현수B	유혜영	유혜원	윤경희	윤근영
윤금옥	윤길채	윤남희	윤다슬	윤대승	윤대준	윤명순	윤미란	윤병순	윤봄이	윤상호	윤석주	윤석훈	윤선이	윤선재	윤성숙	윤수영	윤수한	윤순정
윤시현	윤영빈	윤영석	윤영선	윤용섭	윤은주A	윤은주B	윤진애	윤정배	윤정희	윤종열	윤종영	윤주심	윤지혜	윤진미	윤진희	윤창민	윤창민	윤치영
윤태연	윤행숙	윤향옥	윤형준	윤혜정	윤훈현	윤희	이가연	이강미	이강수	이강순	이강욱	이건희A	이건희B	이경미	이경민	이경분	이경애	이경우
이경임	이경찬	이경호	이경화	이경훈	이계옥	이광중	이교출	이국영	이국용	이권조	이규선	이규창	이규태	이근배	이근후	이금구	이기봉	이기석
이기자	이기출	이기혁A	이기혁B	이기호	이기홍	이길도	이나리	이난주	이날/김용희	이남우	이남주	이누리	이다경	이다연	이달년	이대우	이도원	이도원
이도현	이동건	이동규	이동수	이동원	이동훈A	이동훈B	이두희	이두구	이루미	이명이	이명자	이명재	이명희	이무환	이문행	이미경A	이미경B	이미경C
이미라	이미미	이미애	이미영	이미정	이미형	이민옥A	이민옥B	이민하	이범성	이병규	이병영	이병호	이보남	이복구	이봉락	이봉연	이상교	이상국
이상대	이상민A	이상민B	이상분	이상용A	이상용B	이상원	이상익	이상진A	이상진B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영	이서준	이서현	이석만	이석우
이석환	이선경A	이선경B	이선미	이선빈	이선숙	이선중	이선지향	이선준	이선희A	이선희B	이성이	이성찬	이성철	이성태	이성현	이성희	이세연	이세연
이세은	이세희	이소미	이소현	이승림	이수경	이수구	이수만	이수현	이수진A	이수진B	이수하	이수현	이수태	이수원	이순연	이순옥	이순자	이순자
이순호	이슬기A	이슬기B	이승관	이승목	이승민	이승복	이승섭	이승수	이승연	이승진	이승한	이승현	이시은	이애란	이양혜	이양희	이연숙	이연주A
이연주B	이영복	이영선	이영숙A	이영숙B	이영옥	이영은	이영직	이영진	이영택	이예린	이예원	이예향	이옥자	이완우	이용래	이용재	이원분	이원상
이원택	이원희	이위봉	이유희	이윤경	이윤미	이윤서	이윤성	이윤식	이윤주	이윤철	이은선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주A	이은주B	이은화	이을병
이음민	이인재	이일선	이일순	이일재	이장원	이재건	이재관	이재권	이재근A	이재근B	이재승	이재영	이재일A	이재일B	이재호	이재훈	이진식	이정명
이정민A	이정민B	이정석	이정선	이정수	이정윤	이정은	이정이	이정자A	이정자B	이정재	이정환	이정혜	이정화	이정희A	이정희B	이제용	이조아	이종근
이종기	이종범	이종수	이종천	이종철	이주연	이주현	이주훈	이준하	이준옥	이준훈	이지성A	이지성B	이지수	이지안	이지영A	이지영B	이지영C	이지영



이지원A	이지원B	이지윤A	이지윤B	이지현	이지혜	이진성	이진우	이진원	이진주	이찬우	이창섭	이창수	이재만	이천우	이철	이철목	이철호	이태경A
이태경B	이태영	이태우	이필레	이하늘	이한기	이한길	이한솔	이해성	이항자	이혁재	이혁준	이현경A	이현경B	이현우A	이현우B	이현주	이현진	이현후
이형	이형선	이형철	이혜경A	이혜경B	이혜경C	이혜민	이혜연	이혜영A	이혜영B	이홍금	이홍열	이환세	이호건	이호근	이호린	이효정	이효진	이훈구
이훈우	이희정	이희진	임건호	임건홍	임계원	임남빈	임미경	임병순	임병운	임봉욱	임삼미	임신주	임성우	임수자	임순화	임승빈	임승호	임연택
임용섭	임우정	임은정	임이완	임인순	임재경	임재규	임재림	임재민	임재속	임재학	임정민	임정화	임정희A	임정희B	임종명	임종석	임재미	임태인
임현욱	임현정	임혜숙	임혜순	임효선	임희택	장국진	장기영	장두원	장미경A	장미경B	장미애	장미현	장민서	장석현	장신미	장아연	장영	장영숙
장영주A	장영주B	장민주	장정원	장영환	장영희	장예슬	장예준	장용주	장우영	장우혁	장윤정	장윤경	장혜린	장희경	장희명	전경숙	전경호	전계주
장재혁	장정식	장재우	장주현	장준서	장준혁	장지원	장지윤	장지호	장진호	장차열	장현희	장혜연	전수연	전수란	전영석	전영신	전영환	전예원
전금복	전기중	전다래	전명숙	전명철	전미선	전민화	전민호	전민호	전서진	전성화	전소연	전수연	전순환	전영찬	전영환	전영환	전예원	전용근
전인관	전종민	전주영	전지완	전진성	전현순	전현우	전현진	전현호	전형구	전혜선	전홍수	전홍식	전홍철	전환식	정구혁	정권재	정권환	정규진
정기성	정기성	정성현	정다원	정덕인	정동수	정동울	정문숙	정미애	정미자	정미진	정미희	정병인	정봉근	정사라	정상희	정세봄	정석현	정선욱
정선희	정섭	정성욱	정수경	정수양	정슬기	정시우	정시정	정시훈	정신영	정아윤	정양희	정연권	정영환A	정영환B	정영희	정예원A	정예원B	정욱주
정용주	정욱호	정윤찬	정유리	정유선	정유안	정유은	정윤정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정	정은재	정의희	정이분	정의성	정인교	정인석
정인영	정인해	정인혜	정일량	정재기	정재동	정재룡	정재륜	정재욱A	정재욱B	정재원	정재윤	정재천	정재한	정정교	정정일	정정희	정종수	정종필
정주관	정준호	정중현	정지희A	정지희B	정혜경	정혜란	정혜수	정혜원A	정혜원B	정혜연	정호민	정태수	정태화	정학수	정학수	정하림	정하림	정환승
정희창	정현주	정현준	정현희A	정현희B	정혜경	정혜란	정혜수	정혜원A	정혜원B	정혜연	정호민	정태수	정태화	정학수	정학수	정하림	정하림	정환승
조경래	조경부	조기열	조기은	조기하	조남준	조노현	조동래	조명순	조문경	조미경	조미정	조미진	조민영	조민주	조상우	조서연	조석수	조석영
조선행	조설아	조성경	조성남	조성우	조세현	조소은	조수아	조수용	조수정	조수현	조순복	조순욱	조시현	조양래	조양현	조영국	조영근	조영상
조영수	조영택	조애나	조옥선	조용덕	조우진	조옥연	조원경	조원빈	조유진A	조유진B	조의순	조재영	조정의	조종우	조진희	조태민	조푸름	조하연
조행민	조현	조현근	조현문	조현숙	조현욱	조현우	조현욱A	조현욱B	조현웅	조현일	조현정	조현진	조혜영	조홍찬	조희영	조희재	주기승	주명욱
주미현	주상현	주세영	주영아	주예름	주예은	주인식	주준호	주진봉	주철재	주현욱	지경림	지덕규	지민경	지인상	지현과	진기호	진성욱	진세훈
진승이	진영순	진영희	진희연	차경연	차보영	차상윤	차선근	차선미	차영희	차원나	차인홍	창현욱	채서연	채성묵	채성현	채승석	채승훈	채지우
채하연	채희진	천동미	천미림	천의연	천정은	천준범	최Cloud	경배	최강인	최경락	최경란	최경란	최문희	최미선A	최미선B	최미영	최병기	최병익
최금복	최기식	최기홍	최낙현	최단아	최대용	최동욱	최동원	최명림	최명욱	최명재	최명진	최무경	최문희	최미선A	최미선B	최미영	최병기	최병익
최병일	최병현	최복락	최상국사세	최상문	최상섭	최상숙	최상은	최상일	최석훈	최성연	최성윤	최성자	최수혁	최순덕	최순환	최승아	최승연	최승식
최승우	최신식	최연구	최연실	최영근	최영금	최영민A	최영민B	최영숙	최영은	최영일	최영주	최영희	최용주	최용준	최용호	최우영	최우혁	최우식
최원규	최원만	최월선	최유경	최유진	최유화	최윤숙	최윤지	최율민	최은숙	최은용	최은정	최은희	최인경	최인대	최인수	최장명	최재록	최재명
최재연	최재현	최재혁A	최재혁B	최재형	최재호	최정규	최정은	최정화	최정환	최정희	최중서	최준렬	최준범	최지미	최지민	최지수	최지안	최지욱
최지인A	최지인B	최지혜A	최지혜B	최지혜C	최지혜D	최지호	최창욱	최채원	최필규	최현혜	최형수	최혜은	최화영	최훈	추명호	추승재	추연석	추영민
최환수	표지은	하규빈	하든형	하령자	하미우	하성희	하성주	하승근	하용숙	하우용	하윤지	하중환	하주영	하천일	하회근	하회정	한계수	한기영
한기수	한기훈	한남일	한남혁	한다은	한동민	한미경	한미경	한미숙	한미현	한병호	한보화	한상봉	한서진	한상봉	한소연	한소연	한양희	한영주
한예슬	한완영	한윤희	한은영	한재준	한재혁	한정윤	한정화	한향림	한현경	한호	한호인	함영희	함용태	함운식	함진숙	함재민	함현수	함현주
허경애	허경욱	허남숙	허명호	허명희	허웅	허윤경	허일범	허재욱	허정숙	허정훈	허정희	허중	허지연	허지영	허지원	허지윤	허지훈	허진호
허철형	현상식	현정희	형서윤	홍계복	홍기봉	홍새록	홍석영	홍석준	홍성순	홍성표	홍성화	홍슬랑	홍양호	홍용자	홍윤경	홍은교	홍은표	홍은희
홍재근	홍주선	홍준수	홍춘자	황광석	황규애	황규진	황덕우	황도원	황동욱	황명식	황명진A	황명진B	황미선	황범비	황범아	황상문	황서경	황서현
황선녀	황선영	황선우	황연재	황영숙	황우석	황옥성	황옥진	황은빈	황의진	황인성	황재현	황재호	황제웅	황중해	황주연	황주철	황준식	황지우
황지윤	황진한	황태하	황태학	황학성	황학순	황현주	JIN YINZI	Odenez Margie	PIAOXINGHUA									

## 후원학교

간재울중학교인성기움동아리	감물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6학년 2반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고급고등학교	공주정명학교
관교여자중학교	광명초등학교신실천연구	광일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4,5,6학년 지사모
광희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구미여자고등학교	국산초등학교
금오여자고등학교	금파초등학교 4학년 3반	김포제일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남양주다산중학교	논산고등학교	늘푸른중학교
대구지묘초등학교	대구학정초등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대릉중학교
대산초등학교	대전가오고등학교	대전복수고등학교	대전용산고등학교
대전지족고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원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라온고등학교	마송중앙초등학교	명석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목일중학교	무동초등학교	무안고등학교	문산수여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봉명고등학교	봉일천고등학교
부산국제중학교	부산해화여자고등학교	북명고등학교	북명여자고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삼호고등학교	서명여자고등학교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서울문교초등학교	서천여자고등학교	석봉초등학교	석우중학교(SWMUN)
선인고등학교	선일여자중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성환초등학교
성환초등학교 2학년 4반	성환초등학교 3학년 4반	송림초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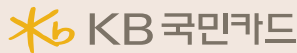
순천왕지초등학교	시흥은행중학교	신선중학교	안남고등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안현초등학교	양산 백동초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어방초등학교	영선중학교	영선중학교 학생자치법정	옥동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와룡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용인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학생회	용인한빛중학교	운암고등학교	운암고등학교 시그마
운암고등학교 학생회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웅천초등학교	원봉중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의왕부곡중학교	인천당하초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인천송도초등학교	인천양촌중학교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청량초등학교
자란초등학교	장곡고등학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전주신흥고 유네스코은누리	전주영생고 유네스코동아리	제석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진가초등학교	진건중학교	진경여자고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	청학고등학교	충남외국어고등학교A
충남외국어고등학교B	충주성심학교	태광고등학교	태광중학교
도평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한솔중학교	한일교사대학A그룹	한천초등학교	행정초등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효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효원고등학교 교육탐구부	흥덕중학교
흥도초등학교	HAFS-UNESCO X HAFS-UNICEF		

## 희망나눔가게

㈜제스아이티    경북한우촌    금산주유소    대도식당 안양점    대흥포장(주)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 후원단체 및 기업

(주)김치빌리어드	(주)비에스월드	(주)삼미철제건재	(주)어반비즈서울	(주)영진제어
(주)오오씨엘코리아	(주)워킹피컴퍼니	(주)유니크테크노	(주)제스아이티	(주)커피비평가협회
(주)케이원	(주)코젠바이오텍	(주)한국프로테크	ASPIRE고려대학교지부	경기대학교UN청년연합회
금강물류	남영산업	노상관	디자인벽지(주)	류와 건축사 사무소
링즈영어학원	봉천감리교회 루디아선교회	변호사 이동환 법률사무소	삼광씨앤비 주식회사	삼정인버터 주식회사
상산정보통신(주)	서광교회	SC 조선해양	세무법인 비전 대전지점	세무법인 텍스코리아
세무사 이행중 사무소	수원스마일치과	순복음좋은교회	외도평안교회	태영기계
태웅건설주식회사				



KB국민카드 포인트리



(주) 부산롯데호텔, (주) 호텔롯데



(주)하나투어



한화호텔&리조트



(주)씨제이이엔엠

\* 이외에도 많은 익명의 후원자님들께서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 아프리카 속담

## 감사의 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인류는 그간 향유해온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중요 사업활동 분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 인구는 7억 5000만 명이 이르며,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대의 아동 및 청소년 약 2억 5000만 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다양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기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포기하거나 중퇴하는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가 펼쳐온 지구촌 교육나눔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늘 우리가 다니던 길거리 풍경이 변해도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에 한결 같이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 르완다에 ‘빛’(urumuri)을 선물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9년 초까지 르완다 내 소외계층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르완다 내 공교육에서 배제됐던 성인들이 글과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아동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부게세라 시에 건립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협력사업의 소중한 결실로, 르완다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알버트 무테사(Albert Mutesa) 사무총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통해 르완다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르완다의 교육 비전은 소외계층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소외계층과 어린 아동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통해 교재 보급, 다양한 수업 제공, 지역학습센터(CLC) 건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한국의 활동가들이 르완다의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교육 지원을 펼치며 시작되었고, 초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한국과 르완다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가 양자 협약을 체결하여 르완다 교육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수 년 동안 이어진 양 국가위원회 간 협력은 ‘우루무리’라는 이름의 지역학습센터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루무리란

르완다어로 ‘빛’ 또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의 교육 소외자들에게 배움의 빛을 전달하자는 소망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공식적으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탄생했습니다. 2018년 11월 학습센터가 첫 문을 열던 날에 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배움의 터전이 생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한 우리의 든든한 친구이자 적극적인 조력자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어 양 국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고 르완다 내 교육권 확산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기에 매우 기쁩니다.

지역학습센터는 2018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개교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미 2017년 8월부터 120명이 넘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2018년 12월부터, 직업훈련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재단수업은 2019년 봄부터 각각 5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건축된 지역학습센터가 르완다 부게세라 주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르완다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주는 수많은 한국의 자원 봉사자, 프로젝트 매니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 정부 및 교육부, 한국 국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아동들





진경여자고등학교 후원금 전달식



##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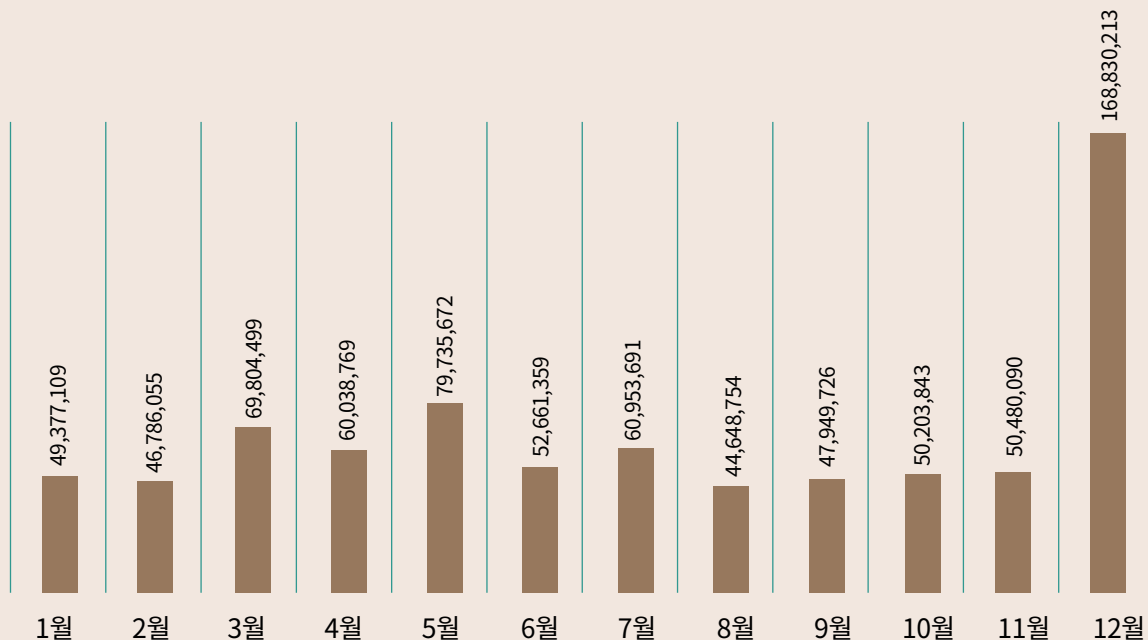
###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금 수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사업은 크게 일반후원금, 지정후원금, 정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일반후원금은 개인(희망나눔가게)과 일반 단체 및 기업, 학교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정후원금은 기업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금입니다.

#### • 월별 수입 후원금

금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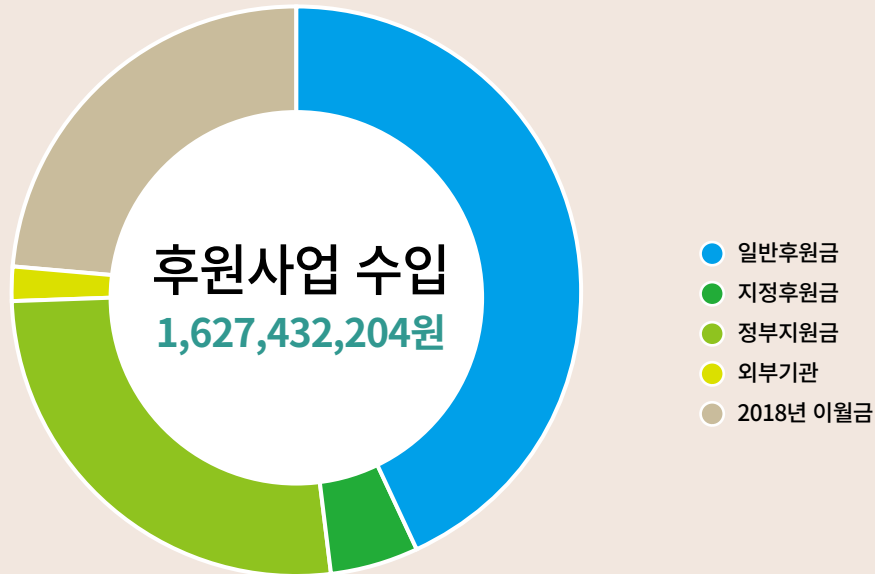
월별	금액	월별	금액	월별	금액
1월	49,377,109	5월	79,735,672	9월	47,949,726
2월	46,786,055	6월	52,661,359	10월	50,203,843
3월	69,804,499	7월	60,953,691	11월	50,480,090
4월	60,038,769	8월	44,648,754	12월	168,830,213 이어폰 및 헤드폰 현물 (114,100,371원) 포함
<b>합계</b>					<b>781,469,780</b>



# “모든 여성이 초등교육을 받으면 9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현황보고서-

## • 자원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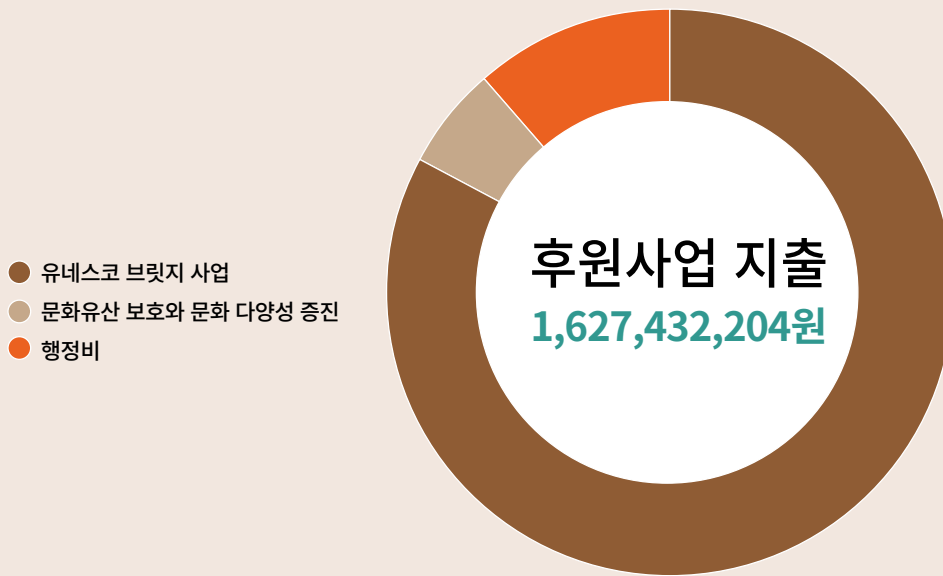
금액 단위: 원

재원구분	세부구분	금액	
후원금	일반후원금	개인, 희망나눔가게	499,059,000
		기업/단체	141,980,238
		학교	60,430,542
	지정후원금	기업	80,000,000
	2018년도 이월금		384,130,596
	기타(이자수입)		1,010,418
외부지원금	정부지원금	교육부	432,000,000
	외부기관	KOICA	28,821,410
<b>합계</b>		<b>1,627,432,204</b>	

##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금 지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지구촌교육나눔 및 문화 지원 사업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지구촌교육나눔 사업 후원금은 아시아 6개국(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과 아프리카 4개국(르완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의 지역학습센터 구축과 문해교육, 생활기술교육, 교사연수와 교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쓰여졌으며, 지정후원금은 유네스코 문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액 단위: 원

사업명	재원				집행금액	
	후원금	정부(교육부)	KOICA	당해년도	차기이월	총계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	306,293,524	432,000,000	28,951,880	767,245,404	580,203,300	1,347,448,704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 다양성 증진	43,836,612			43,836,612	52,220,521	96,057,133
행정비	105,651,887			105,651,887	78,274,480	183,926,367
<b>합계</b>	<b>455,782,023</b>	<b>432,000,000</b>	<b>28,951,880</b>	<b>916,733,903</b>	<b>710,698,301</b>	<b>1,627,432,204</b>





# 지구 건너 펼쳐지는 따뜻한 ICT 교육

브릿지 마을 이야기



## 우리 딸에게도 삶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2016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에는 전체 여아의 49%를 포함하여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수가 2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약 1000만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편자브 주에 있습니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편자브 주의 여성·여아들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분야드문해협의회와 협력하여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사업을 펼치며 여성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 중인 두 학습자 파빈(Parveen) 씨와 살마(Salma)씨를 만나보았습니다.

### “우리 딸도 커서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서른다섯 살의 파빈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전혀 몰랐던 파빈 씨의 동네에 세워진 지역학습센터에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실이 열린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여자인 파빈 씨가 교육을 받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파빈 씨는 첫 수업조차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역학습센터 선생님들은 파빈 씨가 수업에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파빈 씨의 집을 방문해 남편을 설득했고, 다행히 파빈 씨는 문해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얻게 된 기회로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파빈 씨는 이제 이야기책이나 편지는 물론 신문, 공과금 고지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금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열세 살짜리 딸 무나짜(Munazza)도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지역학습센터 선생님처럼 딸도 장차 선생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길 바란다는 파빈 씨는 지역학습센터 재봉교실에도 등록해, 가족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하며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 “우리 가족을 바꾼 컴퓨터 교육”

살마 씨는 다른 파키스탄 여성보다는 비교적 무난한 삶을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병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생업을 이을 가장이 부재한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동생만 여섯 명을 둔 살마 씨는 장녀로서의 책임이 막중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 일을 하는 어머니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은 살림살이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분야드 지역학습센터가 개설한 디지털 허브 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허브 교실은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악한 환경의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및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입니다. 학교를 다니적이 있어 글을 알고 있었던 살마 씨는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습득했고, 이듬해 병원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질의 직업을 얻은 살마 씨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나 정보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살마 씨의 반 친구들도 이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브릿지 프로젝트가 선물과도 같다고 말하는 살마 씨는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동생들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길 희망하며 동생들이 지역학습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교육에 참가한 여성 개개인은 물론, 여성 및 여아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환경까지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학습에 대한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를 접한 사회 구성원이 엄마와 딸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모든 가족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브릿지 프로젝트는 더 많은 여성이 글을 읽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한편,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그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성인문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이유로 일기, 쓰기, 셈하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 없는 소외된 외곽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전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9브릿지 아프리카 사업대상 국가:**  
르완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 사업연혁 •

2009	사업 타당성 연구(유네스코 청년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2010~2012	시범 사업(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실시 (남아공,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청년활동가 18명 파견 • 한위-KOICA-삼성전자 민관협력 사업
2013~2015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으로 개편 _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으로 사업 목표 정립 (남아공,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국가별 프로젝트 매니저 시범 파견 실시 • 교육부 ODA 협력 사업 • 한위 후원금 모금을 통한 사업 확대
2016	대한민국-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도약_ 파트너 국가위원회와 사업 협력을 위한 ‘릴롱게 커뮤니케’ 채택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 범정부 브릿지 국별위원회 설립 운영 • 프로젝트 매니저의 수원국 정부 상주 파견
2017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2018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2019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르완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 학교가 없는 교육소외지역에 배움의 기쁨을 전합니다!

12km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던 보츠와나의 마오마테 마을 주민들, 이제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어진 지역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현지 학교 교육이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문해교실 마련, 교사 역량 강화, 교재 개발 및 보급에 힘썼습니다.



학습자(교육 수혜자)

**5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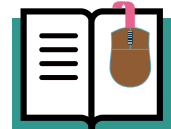
교사 역량강화

**311명**



지역학습센터 건축 및 운영

**8개소**



교재 보급

**7,867부**



**르완다**  
Republic of Rwanda



- 수도 | 키갈리
- 인구 | 약 1,218만 명
- 언어 | 프랑스어, 키냐르완다어, 영어
- 면적 | 26,338km<sup>2</sup>  
(한반도의 약 1/8)
- 총 GDP | 95억 달러
- 1인당 GDP | 773달러
- 종교 | 가톨릭(49.5%), 개신교(27%), 재림교(12%), 기타 기독교(4.5%), 이슬람교(2%), 무교(4%), 기타(1%)
- 문해율(15세 이상) | 73.22%  
(남 77.56%, 여 69.39%)
- 사업명 | 2019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 지역 | 르완다 1개 마을 (부게세라)
- 기간 | 2019.1. ~ 2019.4.
- 주요내용 | 지역학습센터 1개소 (우루무리)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지역학습센터 운영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종료워크숍 개최
- 협력기관 | 유네스코르완다 위원회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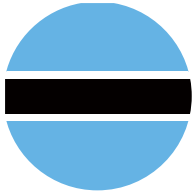


학습자: 235명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게세라 지역의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루무리 센터에서는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을 제공하였고, 유아교육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학습 교구 및 위생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브릿지 국별위원회와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 모인 아이들



- 수도 | 가보로네
- 인구 | 약 225만 명
- 언어 | 영어(공용어), 세츠와나어(통용어)
- 면적 | 581,730km<sup>2</sup> (한반도의 약 2.7배)
- 총 GDP | 112억 달러
- 1인당 GDP | 7,714달러
- 종교 | 기독교(71%), 토착신앙(6%)
- 문해율(15세 이상) | 86.82%(남 86.12%, 여 87.45%)
- 사업명 | 2019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
- 지역 | 보츠와나 3개 마을 (마오타테, 뉴까디, 카가에)
- 기간 | 2019.1. ~ 2019.12.
- 주요내용 | 마오타테 신규 지역학습센터 완공, 지역학습센터 3개소 (마오타테, 뉴까디, 카가에) 놀이그룹활동/유아보건교육/기능문해교실 운영, 성인문해 강사 연수 등
- 협력기관 | 유네스코보츠와나 위원회

##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90명



역량강화 교사: 36명

보츠와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세 곳은 공교육이 제한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의 경우 지역 내 유일한 교육 시설이기에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에게 중요한 학습 공간입니다. 2019년 11월, 늘어난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오타테의 새로운 지역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곳에서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놀이시설을 구비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더 많은 학습자들이 센터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보건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는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학습자 및 학부모들과 더불어 지역 사회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오타테 센터 건립을 위해 유네스코평화예술인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2016년 9월 자선콘서트의 수익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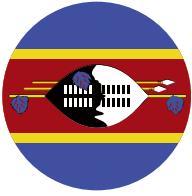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 개소식



완공된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의 모습

조수미 씨가 후원하여 건립한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

**에스와티니**  
Kingdom of Eswatini



- 수도 | 음바바네
- 인구 | 약 137만 명
- 언어 | 영어(공용어), 시스와티어(공용어)
- 면적 | 17,365km<sup>2</sup> (한반도의 약 1/12)
- 총 GDP | 40.2억 달러
- 1인당 GDP | 3,513달러
- 종교 | 기독교(60%), 토착신앙(40%)
- 문해율(15세 이상) | 88.42%(남 88.29%, 여 88.54%)
- 사업명 | 2019 브릿지 에스와티니 프로젝트
- 지역 | 에스와티니 3개 마을 (만지니, 호호, 시셀위니)
- 기간 | 2019.1.~2020.2.
- 주요내용 | 지역학습센터 3개소(엠플랑에니, 구게자, 은궁위니) 환경개선 및 유아/ 문해/ 비형식중등교육 지원, 직업교육훈련(재봉 및 전기 배선) 프로그램 운영, 교재 보급,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제공
- 협력기관 | 유네스코에스와티니 위원회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142명    교사: 275명    교재 보급: 7,867부

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외곽 마을에 위치한 엠플랑에니, 구게자, 은궁위니 지역학습센터 세 곳에서 유아교육, 문해교육, 비형식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 및 전기배선)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에스와티니는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아 교육 격차가 심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에 맞춰 구게자 센터에서 제공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비형식중등교육은 배움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교육중퇴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직업교육훈련(재봉) 관련 자격시험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재 보급, 교사 역량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 에스와티니 지역학습센터의 강사

## 잠비아 Republic of Zambia



- 수도 | 루사카
- 인구 | 약 1,644만 명
- 언어 | 영어(공용어)
- 면적 | 752,614km<sup>2</sup>  
(한반도의 약 3.4배)
- 총 GDP | 267억 달러
- 1인당 GDP | 1,539 달러
- 종교 | 기독교(75%),  
이슬람교, 토착신앙
- 문해율(15세 이상):  
86.75%(남 90.6%,  
여 83.08%)
- 사업명 | 2019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
- 지역 | 잠비아 1개 마을  
(마자부카)
- 기간 | 2019.1.~2019.3.
- 주요내용 | 지역학습센터 1개소  
(네가네가) 성인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제공
- 협력기관 | 유네스코잠비아  
위원회

##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학습자: 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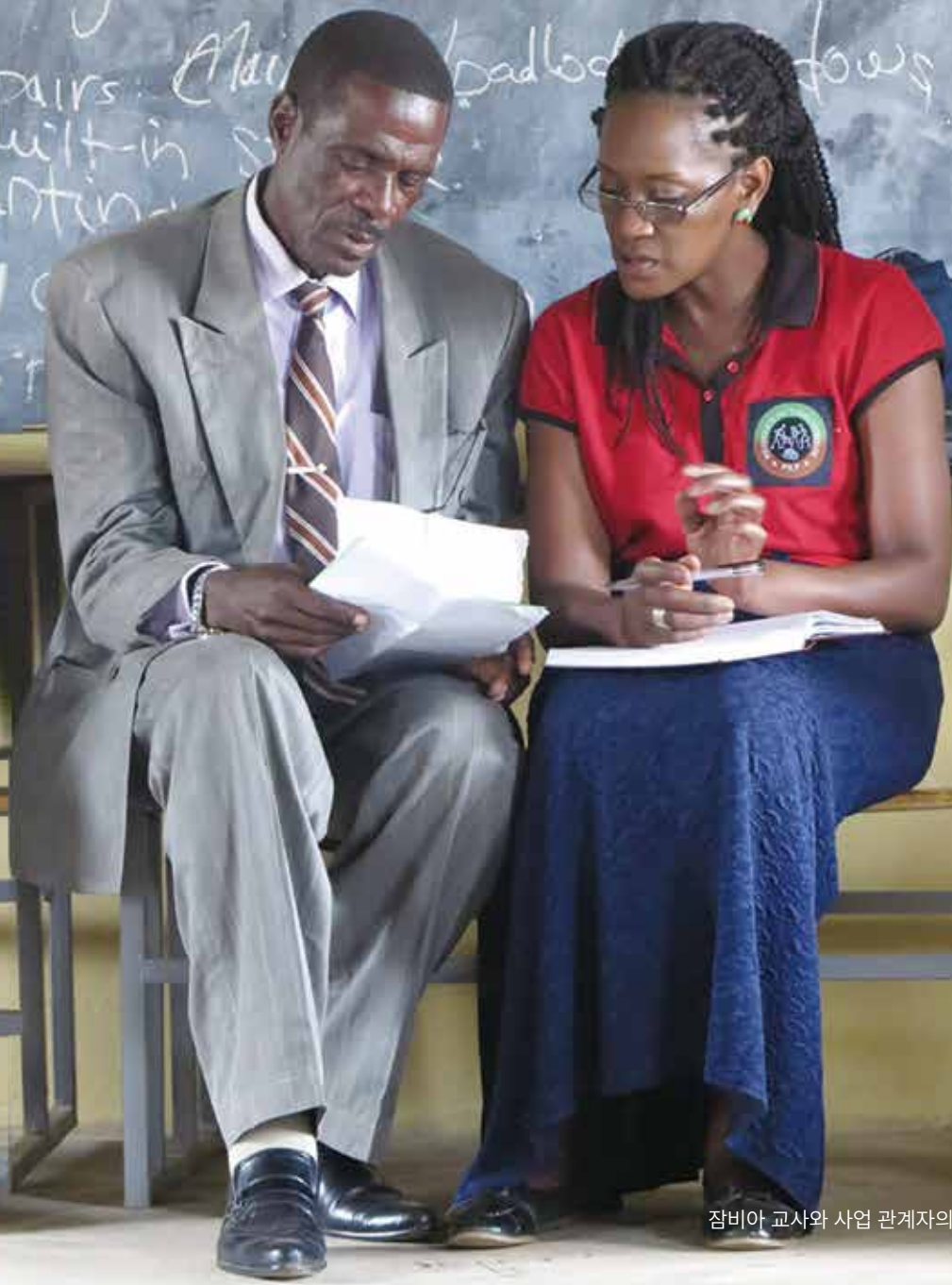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잠비아에는 공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마자부카 지역의 성인에게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 벽돌미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수료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역학습센터에서 아이를 업고 공부하는 학습자



Cement (don't know why)  
Desks/benches x 10  
Reading material (DOD) Room to Read  
Markers, Flip chart/Stand, etc  
Handicraft materials  
Cooking utensils  
Repairs (Main badlock tools)  
Switch-in  
Painting



잠비아 교사와 사업 관계자의 업무 협의 모습

## 브릿지 아시아 사업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 아시아, 세계 인구 전체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 7억 500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남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읽기, 쓰기, 셈 하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유네스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원회 및 교육부, 민간단체 등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문해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브릿지 아시아 사업대상 국가: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사업연혁 •

2012	유네스코 세종 프로젝트 &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2013	유네스코 세종 프로젝트 &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2014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개편 _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 (네팔, 파키스탄 및 아시아지역 우수 문해교육 기관 3곳)
2015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베트남,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제 1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2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부탄) 사례연구 보고서 발간 (브릿지 인도, 파키스탄 프로젝트)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3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4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2019 하반기~ 2020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5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 사회적 차별을 이겨낼 교육의 힘을 전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에서는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물리적인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정책에 관여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 종교 등 사회 관습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학습자(교육 수혜자)

**4,6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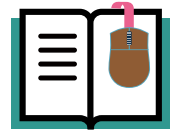
교사 역량강화

**393명**



지역학습센터 건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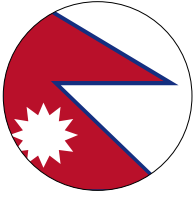
**76개소**



교재 보급/개발

**702부/18종**





- 수도 | 카트만두
- 인구 | 약 2,913만 명
- 언어 | 네팔어
- 면적 | 147,181km<sup>2</sup>  
(한반도의 약 2/3)
- 총 GDP | 298억 달러
- 1인당 GDP | 1,048달러
- 종교 |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 문해율(15세 이상): 67.91%(남 78.59%, 여 59.72%)
- 사업명 | 고르카 지역 지역학습센터 재건 사업
- 지역 | 네팔 1개 마을 (고르카 갈촉)
- 기간 | 2017. 5. ~ 2019. 12.
- 주요내용 | 지역학습센터 구축
- 협력기관 | 유네스코네팔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와 교육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네팔의 교육 재건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체계적인 사전 조사를 거쳐 ‘브릿지 네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네팔 고르카 지역 갈촉마을에 지역학습센터를 구축하여 마을의 학교 밖 배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네팔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2018년 현지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네팔 정부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학습센터의 완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갈촉마을 지역학습센터는 이제 약 2,000여 명의 갈촉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전 충북대 건축학과 이병연 교수(현 송실대)와 현지 관계자의 지역학습센터 건축 협의



갈촉마을의 로크라트나 지역학습센터 완공 모습



로크라트나 지역학습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마을 주민들



- 수도 | 네피도
- 인구 | 약 5,283만 명
- 언어 | 미얀마어(공용어), 기타 소수어
- 면적 | 677,000km<sup>2</sup> (한반도의 약 3배)
- 총 GDP | 685.6억 달러
- 1인당 GDP | 1,298 달러
- 종교 | 불교(88%), 기독교(6%), 이슬람교(4%) 등
- 문해율(15세 이상) | 75.55% (남 80.01%, 여 71.85%)
- 사업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미얀마 비형식교육 역량강화
- 지역 | 미얀마 전역
- 기간: 2019. 4. ~ 2019. 11.
- 주요내용: 비형식중학교교육(Non-formal Middle School Education; NFME) 관련 문서 수집, 보완 및 전자문서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배포
- 사업수행주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미얀마 교육부(대안교육과)

## 사업성과

강사 및 교육 관계자 연수: 51명    비형식교육 문서 전자화: 107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1개

미얀마의 낮은 교육 접근성은 사회적으로 주요한 과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 18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비형식중학교교육(Non-Formal Middle school Education, NFME)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비형식교육 관련 문서(정책문서, 교육과정, 강사 지침서 등)를 개선하고 핵심 자료를 디지털화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습센터 및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본 채널을 통해 강사, 미얀마 정부(교육부 등) 및 지자체 관계자와의 상호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관련 지식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미얀마 비형식교육이 활성화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학교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형식교육에 참여중인 미얀마 학교 밖 학생들

**부탄**  
Bhutan



- 수도 | 팀푸
- 인구 | 약 82만 명
- 언어 | 중카어(공용어), 영어 및 네팔어(상용어)
- 면적 | 38,394km<sup>2</sup> (한반도의 약 1/5)
- 총 GDP | 25.3억 달러
- 1인당 GDP | 3,215 달러
- 종교 | 불교 75%, 힌두교 및 기타 (이슬람교 등) 25%
- 문해율(15세 이상) | 66.56%(남 75.02%, 여 57.08%)
- 사업명 | 부탄 비형식교육 강화
- 지역 | 부탄 전역
- 기간 | 2019. 5. ~ 2019. 12.
- 주요내용 | 비형식교육 학습자, 강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 협력기관 | 부탄 교육부

**사업성과**

 학습자: 117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80명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1종

부탄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산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교육의 손길이 모든 국민에게 닿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부탄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성인문해로, 문해교육의 확산과 이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부탄 교육부와 협력하여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비형식교육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하여 비형식교육 학습자, 강사, 관계자와 함께 지역학습센터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학습센터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문해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했으며 비형식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부탄 지역학습센터 작품 전시회 개막식(오른쪽부터 부탄 교육부 장관 Jai Bir Lai,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광호, 유네스코부탄위원회 사무총장 Karma Yeshey)



부탄 학습자들이 만든 공예품



**인도**  
India



- 수도 | 뉴델리
- 인구 | 약 13억 5,000만 명
- 언어 | 힌디어, 영어
- 면적 | 3,287,782km<sup>2</sup>  
(한반도의 약 15배)
- 총 GDP | 2조 6,110억 달러
- 1인당 GDP | 1,983 달러
- 종교 |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 문해율(15세 이상) | 74.37%(남 82.37%, 여 65.79%)
- 사업명 | 기능문해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여성 권한 강화
- 지역 | 인도 2개 마을  
(우타르프라데시 주 싯타푸르 지역 카이라바드 및 파센디 마을)
- 기간 | 2019. 5. ~ 2020. 2.
- 주요내용 | 기초문해교육, 생활기술교육, 강사 관리 및 역량강화, 인식 제고 캠페인
- 협력기관: 사바기교육센터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4개소    학습자: 594명    강사 연수: 14명    교재 보급: 594부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가 실시된 카이라바드와 파센디 마을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중심인 러크나우로부터 85km 떨어진 싯타푸르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시설의 부재 및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 인프라(도로, 수도 및 배수 시스템 등)의 부족으로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탓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는 기초문해교육(읽기, 쓰기, 셈하기)과 생활기술교육(위생, 건강, 여성권리, 디지털 교육 및 가계관리 등)을 제공하여 마을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역학습센터에서 글을 배운 여성들



지역학습센터 현장 모니터링



**파키스탄**  
Pakistan



- 수도 | 이슬라마바드
- 인구 | 약 2억 4,900만 명
- 언어 | 우르두어, 영어, 펀자브어 등
- 면적 | 803,940km<sup>2</sup> (한반도의 약 3.6배)
- 총 GDP | 3,145억 달러
- 1인당 GDP | 1,482 달러
- 종교 | 이슬람교(국교) 97% (수니파 77%, 시아파 20%), 힌두교, 기독교 등
- 문해율(15세 이상) | 59.13%(남 71.12%, 여 46.47%)
- 사업명 | 여성과 함께 이루어가는 지속가능발전
- 지역 | 파키스탄 3개 지역 (라호르, 하피자바드, 쿡샤)
- 기간 | 2019. 9. ~ 2020. 6.
- 주요내용 | 문해교육 및 문해후 교육, 직업교육훈련, 강사 연수, 디지털허브 및 이동식 도서관 운영
- 협력기관 | 굿네이버스, 분야드문해협의회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24개소



학습자: 1,601명



강사 연수: 171명

여성 교육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관습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파키스탄 여성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의 여성 성인문해율은 46%에 불과합니다. 또한 약 1000만 명의 어린이가 교육, 보호,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분야드 문해협의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파키스탄 여아, 청소년, 성인 여성의 권한강화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4개 지역학습센터를 거점으로 여성들의 문해교육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아들에게 지속적인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 문해교실 현장

## 스리랑카 Sri Lanka



- 수도 | 콜롬보(상업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  
(행정수도)
- 인구 | 약 2,160만 명
- 언어 |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 면적 | 65,610km<sup>2</sup>  
(한반도의 약 1/3)
- 총 GDP | 889억 달러
- 1인당 GDP | 4,102 달러
- 종교 | 불교(70%),  
힌두교(12%),  
이슬람교(9.7%),  
기독교(7.4%),  
기타 및 무교(0.9%)
- 문해율(15세 이상): 91.9%  
(남 92.98%, 여 90.97%)
- 사업명 | 열린학교 프로그램
- 지역 | 스리랑카 19개 지역  
(콜롬보, 푸탈람 등)
- 기간 | 2019. 5. ~ 2020. 3.
- 주요내용: 기초문해교육,  
비형식 초중등교육,  
교사 역량강화 연수,  
교재 개발
- 협력기관 | 스리랑카 국립교육원

##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37개소    학습자: 2,319명    교사 연수: 77명    교재 개발: 16종

다민족 국가 스리랑카는 민족 간 갈등과 내전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인구가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4년부터 브릿지 스리랑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 증진을 위한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을 스리랑카 국립교육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스리랑카 전역에서 열린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중도탈락자, 장애인, 교정시설 재소자, 성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초등 및 중등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열린학교 프로그램



열린학교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

나에게 수업시간은  
마치 아끼고 아껴둔 사탕을  
꺼내 먹는 시간 처럼 소중한  
달콤했던 순간이었다.

”

브릿지 스리랑카 프로젝트  
학습자 아즈백



# 사장님이 된 우리 아내

브릿지 마을 이야기





## 삶을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부탄에서는 이틀간 부탄 전역의 지역학습센터 학습자와 관리자들이 수도인 팀푸에 모여 직접 생산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부탄 교육부장관 등 3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열린 이번 전시회 소식을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부탄의 22개 지역학습센터의 학습자와 관리자, 지역교육담당관, 학교장,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수공예품, 목공예품, 전통회화, 편물, 전통음식 등을 각 지역학습센터 부스에 전시하며 저마다 다채로운 빛깔과 향기를 자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통해 상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학습센터의 활동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상호 학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일구어 온 성공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형식교육센터에서 직업기술을 배워 사업가로 변신한 여성인 소남 데마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참석한 많은 여성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적시는 이도 있었습니다.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소남 데마 씨

저는 붐탕(Bumthang) 종카그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남 데마라고 합니다. 마흔 두 살이고, 기초문해교육과 재봉 기술 등 세 개의 비형식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제 자신이 부탄에 사는 불행한 여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일을 돌보느라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비형식 교육센터가 생겼거든요. 센터에 등록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 가족들은 제가 성인이 되어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 역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비형식교육의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읽고 쓰는 법, 계산하는 법, 재봉 기술을 배워서, 저는 이제 당당히 읽고 쓸 수 있는 어머니이자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저희 마을에 제 손으로 가내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를 차려 사업가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독립적인 여성으로 사회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삶을 변화시켜주고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주신 비형식교육센터에, 그리고 비형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답니다. 다양한 요리법, 자수, 미용기술 같은 직업기술과 생활기술을 좀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고급영어를 배워서 저의 수공예품 가게에 찾아오는 외국인 여행자와 영어로 의사소통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나요?

- 브릿지 부탄 프로젝트 학습자 소남 데마

# Craft Des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ນັກອຸປະກອນເຄື່ອງຫັດຖະກຳ ເພື່ອການພັດທະນາແບບຍືນຍົງ

Workshop on Modern Ceramics Production

ຫ້ອງຮຽນອຸປະກອນເຄື່ອງປັ້ນເຊຣາມິກທັນສະໄໝ

July - 04 August  
Manufacture - 04

Organized by



funded by



#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하나투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2015년부터 꾸준히 세계유산 보호 및 저개발국 유네스코문화분야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도예디자인 국제교류협력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라오스위원회, 상명대학교와 함께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공예 디자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루앙프라방의 반찬마을은 도자기 공예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수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들의 전통 도예 기법을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공예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반찬마을의 도자 공예가들과 루앙프라방 예술대에서 공예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벽돌가마 제작 및 가마의 효율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는 등 현대식 도자제작 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공예가들이 효율적으로 도자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제작기술을 전통 도예기법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지도 제작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4건, 무형문화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이 다수 존재하나,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나 목록이 부재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학교 교사 및 학생, 국내 관련기관,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등 다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후원을 받아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지정유산' 지도 4만 부를 한글 및 영문으로 제작하였고, 전국 600여 개 유네스코학교, 전국 주요 관광안내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호텔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유산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르침과 배움으로 마을에 변화를

브릿지 마을 이야기 





## 부역데기가 내 유일한 운명일 수는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가 만연한 인도 사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부역데기’(부역일을 맡아 하는 여성을 얹잡아 이르는 말)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곧 결혼하게 될 소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일찍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에 큰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회의 이 권위적인 얼굴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도 여성들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를 통해, ‘부역데기’의 운명에서 벗어나 ‘변화의 첨병’으로 도약한 스물 두 살 압사나(Afsana)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내 운명은 내가 직접 씁니다

인도 싯타푸르 지역의 카림나갈 마을에는 스무 명 남짓 되는 성인 여학생들이 다니는 지역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옛날 얼굴의 압사나 씨가 문해교육 교사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압사나 씨와 학생들은 이곳에서 ‘부역데기’ 운명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압사나 씨의 ‘새 운명 만들기’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압사나 씨는 다른 많은 인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곁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아픈 아버지도 있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렸지만 압사나 씨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바느질을 해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까지 무사히 마칠 무렵,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를 통해 카림나갈 마을의 지역학습센터 교사로 선발됐습니다.



지역학습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압사나 씨

### 변화의 첨병

바뀐 것은 압사나 씨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반대했던 남편은 이제 압사나 씨가 지역학습센터에 있는 동안 직접 아이를 돌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집안일을 챙기지 못 한다며 나무랐던 부모도 이제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달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압사나 씨의 수업을 듣는 성인 여학생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 대부분은 “뒤늦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한들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사나 씨의 설득에 하나둘씩 지역학습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제 글을 배우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한 또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교육에 회의적이었던 마을 주민들도 이제 압사나 씨의 용기와 도전에 지지와 존경을 아끼지 않습니다. 배움의 마법이, 압사나 씨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 나아가 카림나갈 마을의 주민들까지 새 운명을 써 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 후원자의 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9년 1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에 동참한 후원자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유네스코 후원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성동구소녀소년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현지 사업국의 사진과 영상 등으로 후원자님에게 후원사업 경과를 소개하고, 장기간 후원해주신 정기후원자님께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감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는 늦가을 서울의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3전망대를 자유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 6년간의 후원이 내 안에 만든 변화

권의재 후원자



후원 감사장 전달

‘뒤에서 돕는다’는 ‘후원(後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얼굴과 이름까지 내걸고 소견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독자들과 함께 후원에 대한 지극히 평범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또 되새겨 보며 편지를 써봅니다.

꼭 6년 전인 2014년 1월, 세종 지역에서 교편을 잡고 새해를 맞으며 세운 목표 중 하나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자’는 것이었고, 교사로서 이왕이면 교육 분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부활동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2014년부터 후원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한 우연과 그간의 꾸준한 후원이 겹치며 작년 말에는 개인후원 부문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의 지난 6년간의 후원은 무심함과 무관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후원이 지구촌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다는 축하공연 가수를 보기 위해 ‘후원자의 밤’에 참여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뉴스에서 어떤 기부단체의 기부금 횡령 관련 뉴스를 보면서 기부금 사용내역이 좀 더 투명해야 된다고 투덜대곤 했습니다. 저의 기부금이 소득공제 내역에 잘 반영됐는지 살피는 것만큼 후원이라는 과정 자체에 열심인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남 앞에 서면 누구보다도 교육 나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이 작은 아이들의 꿈도 적잖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괜한 분함에 교육에서만이라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따금씩 『유네스코뉴스』에서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이리저리 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저의 ‘표리부동’이 6년쯤 지속되면서, 어느새 지구촌 교육나눔이 저에게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 진심으로 지구촌의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기본적인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봉급은 커녕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교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나눔이란 말에 진심을 담고, 가랑비 같은 저의 작은 행동들이 어느덧 제 삶을 적시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행동을 하다보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쓰다보면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

면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시작한 작은 후원이 제 삶의 작은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세계의 아이들의 삶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니, 낮간지러우면서도 한편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진정한 교육 나눔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밥 한 끼를 나누고 연필 한 자루를 쥐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서, 말이 안통해서, 혹은 일상적인 위협 때문에 배움은 근처도 못 가본 아이들이 단 하루라도 걱정 없이 학교에 올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넉넉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소한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은 작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함과 일상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든 선생님이든 마음이 움직인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흐를 것이니까요.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나눔의 맛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주인공은 ‘나는 의뢰인도, 사용자도, 거지도,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며 인간적 존중을 잃어버린 사회를 비판합니다. 이 말처럼 인간적 존중과 기본권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 짧은 편지 한 통도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저도 모르게 나눔이란 말에 진심을 담고,  
가랑비 같은 저의 작은 행동들이 어느덧  
제 삶을 적시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또다시 이런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도록 지구상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사명은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 창설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헌장」 채택일)

## 소재지

프랑스 파리

## 기능과 역할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아이디어 실험실 기능; 혁신적 제안 및 정책 자문 제공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정책 분석, 모니터링,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의제 개발 및 강화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규범 및 기준 설정; 규범 및 기준 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 정책 개발 및 이행; 제도적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자문 제공

## 회원국

193개 정회원국 및 11개 준회원 (2020년 9월 기준)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 <유네스코 헌장> 중에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의 로고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것으로,  
유네스코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학, 문화를 상징합니다.  
신전의 여섯 기둥은 유네스코의 영문 철자 여섯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벌어진 한국전쟁 중에도 정부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했고, 마침내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유네스코, 대한민국 정부, 국내의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 창설

1954년 1월 30일

##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

## 설립 근거

「유네스코 헌장」 제7조(국가위원회 설립 요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목표

교육·과학·문화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

## 기능과 역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진작
-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정책수립,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사·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총회 의안의 작성,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건의
-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 이행에 관한 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및 사업 수행, 조정 등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총회를 주재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분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인문사회·자연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더해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

인간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교육 2030(지속가능발전 4번 목표 - 교육 2030)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 인문사회·자연과학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물, 해양, 생물다양성, 과학정책, 윤리, 청년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국제/정부간 과학 사업 •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및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지질공원 •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 사회변동관리 사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량 강화



## 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 분야의 최신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포럼, 훈련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와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 • 무형유산 • 세계기록유산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문화 분야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소외계층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공개교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함양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지식사회 구축을 위한 공개교육자원 활용 촉진
- 언어 다양성 증진 • 커뮤니케이션 분야 네트워크 협력



##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문해교육과 직업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교류 협력 • 후원개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자주하시는 질문(FAQ)

**Q.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나눔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이의 구호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헌장」 제7조와 대한민국 특별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식 유관단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육 소외 지역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나요?  
모집경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A.**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원금 모집과 사용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외부·내부의 회계감사를 시행합니다. 웹사이트,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원금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7%는 사업비로 쓰이며, 모집경비는 13%로 시민과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활동과 모금 참여를 위한 국내 캠페인 추진 및 유네스코 활동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Q.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국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요?**

**A.** 유네스코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충돌과 갈등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며,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유네스코헌장의 정신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개개인 모두가 빈곤, 기아, 전쟁 등 지구촌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평화로운 지구촌을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Q. 제가 보내는 후원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A.** 후원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 사각지대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습센터를 짓고, 글을 모르는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고,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교사 연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아시아와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직접 책과 학용품 보내줄 순 없을까요?**

**A.** 대부분의 책과 학용품들은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직접 보내면 통관을 위한 관세와 배송비가 물품비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후원해주시기 보다는 후원금을 통해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또는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편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르완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간판 제막식

# 유네스코 헌장

제정일 1945. 11. 16. / 발효일 1946. 11. 4.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등 인도적 과제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과정(2000~2015년)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고 전세계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





##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 교육나눔 연차보고서

펴낸날 2020년 9월 15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지은이 김용범, 신미아, 윤선이, 송종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http://peace.unesco.or.kr>  
전자우편 [peace@unesco.or.kr](mailto:peace@unesco.or.kr)  
간행물등록번호 ED 2020 RP 4

회원문의 1800-9971  
회원계좌 국민은행 375301-04-106542  
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넬슨 만델라 -



